

《2022년 페루 북쪽 치클라요-기도편지 1 (민병문 이미애 선교사)》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록 힘든 시국이지만 정겹고 따뜻한 명절이 되시길 바라며, 다시금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2022년 첫 기도편지를 올려드립니다.

1. 코로나19 감염 증가로 어려움 중에 있는 고국 교회를 위해 기도드리며, 이곳 페루도 오미크론 코로나 감염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주일 예배에 참석한 꼰수엘로자매와 그 가족들이 코로나 양성반응이 나와서, 이번주부터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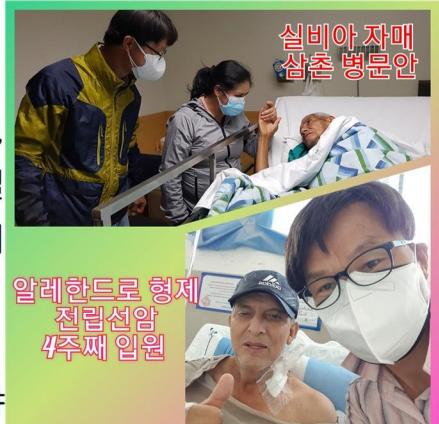
꼰수엘로 자매의 영향인지 예배에 참석했던 연세가 있는 테레사 모녀와 소냐 자매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소냐 자매는 지병 때문에 1차 백신만 접종했고, 테레사 모녀는 미접종자입니다. 저희 부부는 3차까지 접종을 했고, 자녀들은 2차 접종을 마쳤지만, 교회 성도들의 감염으로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클라요 교회의 첫 열매인 알레한드로 할아버지가 전립선암 2기로 응급실에서 4주째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소냐 자매도 3월에 눈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2. 지난해 11월에 세례식을 했습니다. 테레사 자매, 엘로이 형제, 페르난도 학생, 세바스찬 학생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엘로이 형제의 고향인 올모스에서 치클라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석해서 세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동안 세례를 미루어왔던 엘로이 형제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엘로이/실비아 부부는 개척교회 때부터 함께 했으며, 저희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첫 부부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연말 리마에서 2박 3일 가졌던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에도 함께 참석하여 훈련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부부의 신앙이 성장하여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엘로이/실비아 부부, 페르난도/루이사 부부, 릴라 자매, 제니 자매, 까롯 자매가 지난해 11월 26~28일 리마에서 2박 3일 동안 열렸던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가 좀 잠잠할 때여서 건강이나 아무런 사고 없이 모두 은혜받고 돌아와서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도 스스로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올모스 헬리아나교회, 라스빠빠스 교회의 축하 행사에도 동참했습니다. 훈련받은 7명의 성도들을 중심으로 가정교회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4.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해 9월 말에 시작된 선교센터겸 교회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층 천장겸 3층 바닥의 콘크리트 타설을 했습니다. 48평의 대지에 1층-예배당, 2층-교회식당과 사택, 3층-사무실, 교실과 게스트룸, 4층-청년회실, 교실과 게스트룸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게스트룸은 단기선교팀과 단기수련회를 위한 숙소와 학사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공간들을 잘 활용해서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이 페루의 무더운 여름이라서 따가운 햇볕 아래에서 공사를 이어나가고 있고, 느리게 진행되는 공사에 가끔씩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지만, 아무런 사고없이 잘 진행됨에 감사드리며, 부족한 건축 재정이 채워져, 긴 판데믹동안 선교센터겸 교회를 잘 준비하여 다음 세대 일꾼, 제자, 사명자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5. 자녀들이 방학을 하고 저희 가정은 매일 저녁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기도 부탁드릴 것은 첫째 딸 하은이가 페루 현지 대학의 2학년 2학기째인 작년 가을에 건강이 안 좋아져서 학기 중에 휴학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KPM의 MK담당 선교사님께서 상담자를 소개해 주셔서 심리 검사를 받았고 지금은 매주 한 번씩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서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하은이가 성인이 되어서 작년 7월에 거주권을 새롭게 신청을 했는데, 느린 페루 행정 절차 때문에 아직도 완료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여 한국에 가지 못하던 차에 페루에서 의료사역하시는 한인선교사님의 도움으로 페루 현지 크리스챤인 전문의 선생님과 연결이 되어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이 저희가 보기에 아직까지 부작용 증상이 없고 많이 안정이 된 상태입니다. 하은이의 거주권 절차가 마무리 되어서 입국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은이의 건강이 회복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1. 진행중인 ‘매일말씀묵상과 바이블타임’을 통해 성도들이 올해 성경을 한번 통독할 수 있도록
2. 치클라요와 올모스 가정교회들이 잘 정착하고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3. 코로나에 감염된 성도들과 전립선암으로 입원한 알레한드로 형제의 건강이 회복되도록
4. 선교센터겸 교회를 건축 중인데 부족한 건축 재정이 채워지도록
5. 마이너스 선교 재정이 채워져서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페루 북쪽 치클라요에서
민병문 이미애 선교사 드림